

# “빚 탕감해 드려요”... 서민 울리는 거짓 대출광고

#1. 회사원 서부광(41·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신용카드 결제일만 되면 짜증이 난다. 마치, 자신의 결제 일정을 미리 안 것처럼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2. 주부 문미영(42·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도 최근 낭패를 봤다. 급전이 필요했던 문씨는 때마침 NH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가능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미심쩍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했다가 자신에게 걸려온 문자메시지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자신의 신상이 담긴 관련 서류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서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과장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과장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

## ‘신용등급 상관없이 간편’ 신문기사처럼 꾸며 소비자 유인

### 금감원 “등록 대출업체인지 꼭 확인을” ... 피해 주의보 발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대출모집인은 서민층을 위한 지원자금을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경제기사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서민대출이 화제다’라는 식으로 마치 서민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품이 출시된 것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해 해당 대출상품을 광고한 것이다.

한 미등록대부업체는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불법으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는 인터넷에 ‘정부가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가 달미가 잡혔다.

이밖에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청 후 1시간 이내 대출’,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 문구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면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s1332.fss.or.kr),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치론(www.koreaeasyloan.com·1533-1110) 등을 이용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트렉스타 인천 구월점 매장 내부 전경 (트렉스타 제공)

## 트렉스타, 공격 마케팅 나선다

### 전국 20~30개 대리점 추가 모집

### 신발 부문 강화·의류 제품 차별화

한국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국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트렉스타는 2016년 매장 개설 지원을 받아 전국에 20~30여개의 대리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며 전국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상대로 매장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며 일부 브랜드는 철수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렉스타는 2016년에는 트렉스타의 강점인 신발 부문에 역량을 강화하고 의류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단일 품목 누적판매 '100만켤레 신화'를 달성한 트렉스타의 대표 제품인 '코브라 시리즈'의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트렉스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메가웨이브(MEGA WAVE)'라 인 문칭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희 트렉스타 국내영업본부 이사는 “트렉스타는 2016년 저성장의 시장 기조와는 달리 높은 성장 계획을 가지고 전국 주요상권에 매장 개설을 앞두고 있다”며 “회사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가두점과 백화점 유통망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렉스타는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60여개 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 아웃도어 전문지 컴패스(COMPASS)지를 통해 2015 아웃도어 슈즈 판매 아시아 1위,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에는 ‘헬스프리트’ 신발로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 아웃도어 스포츠용품 박람회(Ispo)에서 2관왕을 수상했다. 대리점 개설 문의 070-8169-311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술 통해 섭취 에너지량 16년새 2.5배나 늘었다

한국인들이 술을 통해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이 최근 16년 사이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과 과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은 줄어든 반면 고기와 달걀, 우유, 음료수에서 얻는 에너지의 양은 늘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식품군별 섭취량 추이’(권상희, 오경원) 보고서를 보면 1998~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조사로, 2014년은 6801명이 조사대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잡아라” 푸드 기획전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임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파티나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스파크링과 샴페인 등을 판매한다. 또 이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푸드 특별 기획전을 연다.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임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파티나 연말 모임에 어울리는 스파크링과 샴페인 등을 판매한다. 또 이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오는 25일까지 다양한 푸드 특별 기획전(광주신세계 제공)

## 올 식품업계 키워드는 건강·효능·맛

### aT, 식품산업 정보 심포지엄

올해 식품업계의 3대 이슈는 건강, 효능, 맛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식품산업 정보, 미래로의 창을 열다’를 주제로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산업 매트릭스 분석



대 키워드로 뽑았다.

또 ‘국산원료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는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와 식품산

업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춰 로컬푸드 활용 모델도 제시했다.

그간 정부가 강조해 온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업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과 궤를 같이 해 향후 식품산업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심포지엄 행사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aT에서 제공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이하 FIS)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시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진에어 인천~호놀룰루 노선 신규취항

### 저비용항공사 중 장거리 운항 처음

진에어는 20일 “지난 19일 저녁 인천~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고 밝혔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것은 진에어가 처음이다.

진에어는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중대형기종인 B777-200ER(393석)을 투입했다.

호놀룰루행 여객기는 월·수·목·토·일요일 등 주 5회 인천에서 오후 8시40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날 오전 9시20분 도착한다. 비행시간은 약 8~11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진에어는 정기세일인 ‘진마켓’에서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을 최저 55만원대(세금포함 총액)에 판매했다. 기존 대형항공사 가격의 절반에 판매한 셈이다.

진에어의 첫 번째 하와이행 여객기 탑승률은 97%를 기록했으며, 이달 말까지 예약률도 평균 92%로 집계됐다.

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국적 LCC 4곳은 최대 6~7시간을 운항할 수 있는 200석 미만 항공기만 운영하는 반면 진에어는 중대형기인 B777-200ER 3대를 도입해 처음으로 장거리 노선에 도전했다.

/연합뉴스

## 펜션·문화복합시설 최적!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3억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 2016년도 부동산 투자!

### (주)오천경매와 함께 시작 하십시오!

**대표 : 최선규  
H.010-3605-5000**